농림축산식품부

올해 할랄제품 개발에 20억원 투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20억 인구의 이슬람권 거대 소비시장을 목표로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5년 신규 연구과제(5개 주제, 총 20억원 규모)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현장에 필요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6건의 할랄 관련 기술이 접수되었고,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통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총 5개 주제를 선정, 연구과제제안서(RFP)를 도출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주도 R&D를 통해 기초 · 원천 · 실용화 · 제품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에 원료 · 생산단계, 제조 · 공정단계, 제품화단계, 인증단계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수출 및 내수(무슬림 거주자 등)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한 할랄 관련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www.fris.go.kr)하여 2016년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는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5.19일(화)에 실시했으며, 6.1(월)~6.18일(목)까지 연구개발 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대학, 산업체, 출연연, 농업법인, 영농조합 등이 신청 가능하며, 평가절차를 거쳐 7월초부터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일정 : 공고(5.19) → 접수(6.1~18) → 선정 · 평가 (6월말) → 예산지원(7월초)

■ **공모개요**

- **(목적)**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및 이슬람 문화권 공략을 위한 할랄제품 개발 R&D 지원
- **(공고/접수기간)** 2015.5.19(화)~6.18.(목)/6.1.(월)~6.18(목)
- **(신청대상)** 대학, 산업체, 출연연, 농업법인, 영농조합 등
- **(공고분야)** 할랄제품 3개 주제, 할랄식품 2개 주제
  - 할랄제품 : 플랜트 단위 생산공정 인증/할랄식품 진위 판별기법/ 할랄 향장제품 개발
  - 할랄식품 : 할랄 장류 개발/할랄 K-Food 및 대체 소재 개발

■ **공고 세부 내용**

① 플랜트 단위 생산공정에 대한 할랄 인증 지원
- (목적) 플랜트 단위의 생장공정을 인증을 받을 경우 개별 제품 인증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할랄식품 진위판별을 위한 신속 진단기법 개발
- (목적) 식품이나 제품 내에 돈육이나 알코올 성분의 포함여부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안정적 수출에 기여

③ 국내 고유 농산자원을 활용한 천연물 유래 향장용 제품 개발

– (목적) 중동 국가들은 건조, 고온, 자외선 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특성상 할랄 화장품 등 향장용 제품들의 수요가 많은데, 제조시 돼지 콜라겐 대체제 개발 및 할랄인증 향장용 제품 개발 지원

④ 이슬람 시장에 수출 가능한 전통 장류 개발

– (목적) 전통 장류(고추장, 간장, 된장 등)의 발효과정에서의 알코올 생성 수준을 측정하고 적정 수준(0.5% 이하)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전통 장류의 수출 기반 마련

⑤ 한국형 할랄 K-FOOD 식품 및 대체원료(소재) 개발

– (목적) 할랄 K-FOOD 식품 및 대체원료 개발을 통해 한식의 시장개척 및 수출 촉진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AI 예방통제센터' 업무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4월 30일 동식물위생연구동 3층 회의실에서 AI 사전 예방 및 조기 종식을 목표로 신설된 AI 예방통제센터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축산전문 기자단을 초청하여 AI 예방통제센터의 비전 및 추진 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소개하고 AI 방역업무와 관련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하였다.

축산전문 기자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AI 예방통제센터의 현장중심의 방역 추진 상황을 설명 받은 후, 이어진 질의 · 응답 시간에 신설조직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역사업 추진과 현장과의 소통을 주문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AI 예방통제센터가 향후 AI 방역업무에 선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방역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014년 국내산 식육 잔류물질 검사결과 발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5월 15일 2014년 국내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실적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 · 도 축산물시험검사기관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및 말고기를 대상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 143종에 대하여 국내산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약 20만건 수행하였다.

전체 검사물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모니터링 검사에서는 약 16만건 중 약 0.10%에 해당하는

150건 만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나 생산단계에서의 잔류물질관리가 양호하였으며, 또한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6개월간 출하 시 규제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하도록 특별 관리하였다.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긴급도살 등 잔류 의심축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규제검사에서는 전체 약 4만건 중 266건의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위반 물량 전체(약 24.7톤)를 모두 폐기 처리하여 문제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할랄 축산식품 현황 및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 할랄 축산식품 활성화와 이슬람권 수출 확대를 위하여 5월 19일 서울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할랄 축산식품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한-UAE(아랍에미리트연합) 간 '할랄 식품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국내 · 외 할랄 식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국내 할랄인증 현황 · 절차 ▲이슬람권 수출을 위한 유업체 할랄인증 추진사례 ▲수출 안전성 지원 현황 및 표시사항 등 개정 방향 ▲국내외 할랄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다.

특히 유가공품의 국외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추진 절차, 애로사항 등 인증 사례가 소개되었다.

식약처는 축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각국의 식품안전 제도와 시장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할랄 축산식품의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에 참석하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할랄 관련 정책 추진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인단체와의 협력 강화 위한 초청 간담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 · 농촌 발전과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전국 농업인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4월 29일 농촌진흥청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양호 청장은 농업 · 농촌의 경쟁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선 농업기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농업인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으며, 농촌진흥사업의 새로운 방향과 농업 · 농촌 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진흥청이 전북혁신도시 농업생명연구단지 이전 후 갖는 첫 공식 행사로서 미래 농업을 견인하기 위한 새 전북 시대에 맞는 역할과 농업인단체와의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업 · 농촌 발전의 상생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다음카카오와 농업기술정보 공동활용 업무협약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5월 14일 제2회의실에서 정부3.0 실현의 하나로 다음카카오(대표 최세훈, 이석우)와 실생활에 유용한 농업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콘텐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농촌진흥청은 농업 전문 인력으로 '다음-지식공간'을 이용해 농업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소통을 활성화한다.

다음카카오는 '다음'의 백과사전과 지식공간에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병해충 도감과 향토음식 서비스, 건강한 요리법, 실내정원 가꾸기, 텃밭 정보 등 도시농업 관련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의 농업 기술과 식품가공, 도시농업 분야의 가치 있는 정보를 누리집 '다음(www.daum.net)'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연구 100년 대계 기원 제막식과 축혼제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 8일 축산시험 연구 과정에서 희생된 가축들의 넋을 기리고 새로운 축산연구 100년의 계획을 준비하는 축혼제와 제막식을 열었다.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혁신도시 농업생명연구단지) 축혼비 앞에서 마련된 이 행사는 새 청사로 이전한 과정에 대한 설명과 축혼사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축혼비 앞에는 가축들이 좋아하는 배추와 무, 사료, 마른풀(건초)과 대추, 밤, 배, 사과, 곶감, 당근 등으로 제상을 마련했다.

축혼사는 '가축질병으로 축산업의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땅에 축산업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홍성구 원장은 "해마다 많은 가축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며 "축산연구 100년이라는 큰 그림을 목표로 보다 열정적인 조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전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대형유통업체 식육판매업 HACCP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은 4월 24일(금) 인증원 8층 회의실에서 '대형유통업체 식육판매업 HACCP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및 서울지방식약청,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축산물 유통의 위생안전을 선도하는 대형유통업체(5개, 7명)에서 참석하였으며, 식육판매업 HACCP활성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HACCP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과 안전관리통합인증 설명, 그리고 인증원의 15년도 유통분야 HACCP활성화를 위한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에서 HACCP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진만 원장은 "대형유통업체에서 HACCP을 운영하면서 느끼고 있는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해 주기바라며, HACCP 취약분야인 유통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형유통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인증원은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한 업무협의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형유통업체 식육판매업을 비롯한 유통분야 HACCP인증율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필리핀 농업해양자원개발위원회 대상으로 주요사업 관련 교육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 이하 '축평원')은 5월 6일 경기 군포 축평원 소회의실에서 필리핀 농업해양자원개발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축평원 주요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

했다.

이번 교육은 필리핀 측이 한국의 성공적인 국내산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전략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부산대학교(조병욱 교수)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필리핀 국제협력 세미나 과정 중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확립을 위한 축평원의 주요 사업' 안내를 주축으로 이뤄졌다.

더불어 축평원 유전자분석실을 견학하는 한편, 경남 김해 부경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 · 가공 과정을, 김해축산물공판장 서부지점에서 판매과정을 둘러보는 등 축산물이력제 현장을 모두 보며 사업의 현장 적용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필리핀 농업해양자원개발위원회는 2015년 10월 추진하게 될 축평원의 국제협력사업 '축산물품질평가 향상 특화연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축평원은 앞으로도 국제협력 사업 확대와 대외교류 강화로 국내 축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기관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무역협회 협업으로 농식품, 공산품 대중국 수출확대 물꼬 트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5월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B2C 사이트인 티몰(Tmall)에 한국관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통식에는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와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馬雲)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aT 김재수 사장, 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티몰(Tmall) 한국관 오프닝 세레모니가 진행되었으며, 중국 온라인 진출에 관심이 많은 농식품을 포함한 일반상품 제조업 수출업체 200여 명을 초청하여 온라인 한국관 거래방식 설명과 시연, 대 중국 온라인 전략 설명회가 개최되어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기대를 한층 높였다.

중국 온라인 시장의 한국 상품 진출확대를 위해 지난해 10월에 aT와 알리바바(1688.com)의 협력사업 발표에 이어 중국 최초 B2B 한국식품전용관을 개설하였고, 이에 앞선 8월에는 마윈 회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Kmall24 상품의 티몰 입점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최경환 부총리와 마윈 회장 면담시 알리바바 B2C 티몰에도 한국관을 개설키로 협의해 진행된 것으로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2003년도에 설립된 티몰은 중국 최대의 B2C 인터넷 쇼핑 사이트로 2014년 솔로데이(11월 11일) 1일 매출액이 10조에 이르는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국내 유명 브랜드 기업들도 앞 다투어 티몰 입점을 서두르고 있다.

한류스토리, 한국상품, 여행 등 종합적으로 구성되는 티몰 한국관에는 기존 티몰 한국상품 판매업체들이 우선 입점하게 되고 단계적으로 상품종류 및 입점업체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aT 김재수 사장은 "지난해 알리바바 B2B 한국식품 전용관 개설에 이어 B2C 사이트인 티몰 한국관 개설로 중국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한국식품을 구매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중국 온라인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 내 한국식품 전용관을 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7월에 정식 오픈예정인 청도 수출전진기지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한국식품이 중국 전 지역에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은 "그 동안 알리바바 운영 쇼핑사이트에 산재되어 있던 개별 셀러들의 상품들을 한국관 내에 테마별로 통합 노출함으로써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경쟁력 있는 알리바바그룹의 물류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중국내수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aT는 지난해 10월에 온라인 시장에 한국농식품 진출확대를 위해 알리바바 B2B 협력사업 발표회를 갖고 B2B 쇼핑몰 최초로 온라인 한국식품전(10월 27일)을 개최하여 행사당일 거래액 약 18억원 이상(평소 대비 20배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12월에는 알리바바, 1호점 등 온라인 식품담당 MD를 초청하여 농식품 수출기업과 입점 상담회를 펼쳐 약 200만 불의 상담실적을 올렸고, 올해 3월 26일에 창립된 "알리바바 입점 한국식품 기업협의회(36개사 참가)"를 통해 정식 통관된 한국 농식품의 입점 확대와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한국 농식품의 온라인 거래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협회도 '08년 8월 알리바바닷컴과 MOU를 맺은 이후, 빅바이어 초청 한국상품 구매대전 등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 해외마케팅 협력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 온라인 해외직판몰인 Kmall24를 개통하여 15년 5월 현재 1,200개사 12,000개 상품을 입점하여 판매 중이며, 알리바바 티몰글로벌에도 Kmall24 전용관을 개설하여 우수 한국상품의 중국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

중국의 온라인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13년 1조 8,500억 위안(한화 약 329조원, 전년대비 42% 성장)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17년에는 4조 위안(약 700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온라인 시장의 중심에 바로 마윈(馬云)회장이 이끄는 알리바바 그룹이 있으며, 알리바바 그룹 산하에는 알리바바닷컴(Alibaba.com, B2B), 1688.com(B2B), 타오바오(淘宝, C2C), 티몰(天猫, B2C), 쥐화수안(聚划算, 공동구매)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임경종 신임 본부장 취임 후 축산관련 기자 간담회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5월 7일부로 임경종 신

임 본부장이 부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안양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축산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축질병 청정화 등 축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위생방역본부의 사업현황을 설명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경종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WTO, FTA 등 수입개방의 높은 파고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축산 환경오염으로 외면, 재난형 질병인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모두가 함께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위생방역본부의 역할 및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초동방역의 강화, 전화예찰의 전문성 향상 등에 대해 논의됐다.

〈임경종 본부장 주요 약력〉

임경종(1953년생)

학력

– 전북 전주 출생

–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사)

주요경력

– 국립동물검역소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장 등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부 축산물안전과장